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주최

닭 및 계란에 대한 작문 현상공모 우수상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상)

나는 계란먹보, 통닭 먹보



홍 원 기

인천 청천국민학교 2학년 10반

내 얼굴같이 넓은 계란 후라이는 물렁물렁해서 할 머니도 좋아하십니다. 김밥 같은 계란말이와 목같은 계란찜은 밥 반찬으로 먹습니다. 2학년때부터는 덜 익은 계란도 먹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덜 익은 것이 아주 익은 것보다 영양가가 더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계란 국도 좋아합니다. 날 계란을 풀어서 끓인 국입니다.

계란국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금방 금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요리선생님 같습니다. 계란 빵도 만드십니다. 밀가루에 날계란을 깨뜨려 넣고 반죽하십니다. 어제 또 다섯 식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튀긴 통닭도 좋아합니다.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이 최고입니다. 껍데기와 날개 있는데가 쫄깃쫄깃합니다. 하얀 살을 씹으면 고소합니다. 지난 방학 때에는 하루에 통닭한마리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힘이 셉니다. 아프지도 않아 병원에도 안 갑니다. 나의 약은 계란과 통닭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계란과 닭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한 계란 먹보, 통닭 먹보가 될 겁니다. **양계**

내 별명은 먹보(?)입니다. 식구들이 지어 주었습니다. 나는 계란과 통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계란은 2살때부터 엄마 젖이 모자라서 삶아 으개어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9살이니까, 7년이나 먹은 셈입니다.

그래서 계란 음식은 모두 좋습니다. 찐 것도 좋고 후라이, 계란말이 등 아무거나 다 좋아합니다. 찐 계란에서 노른자가 구슬같이 예쁩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도 먹습니다. 밤같이 파슬파슬하며, 흰자는 두부 같이 먹기 좋습니다.